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얌생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3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얌생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얌생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얌생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얌생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얌생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얌생이

얌생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얌생이’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얌생이’는 염소를 뜻하는 ‘얌’에 접미사 ‘-생이’가 결합한 것이다. ‘얌’은 ‘염소’의 옛말인 ‘염’으로부터 모음이 교체된 형태이며, 접미사 ‘-생이’는 ‘괴생이(고양이의 경상 방언)’, ‘말생이(망아지의 경상 방언)’ 등에서 형태가 발견된다.

뜻과 쓰임

‘얌생이’는 본래 염소를 의미하였는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지금도 방언에서는 ‘얌생이’가 염소의 의미로 사용된다.

문헌 속의 얌생이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얌생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얌생이

출처 1949 동아일보 10월 11일 2면 용례 01

문헌 용례

소위『얌생이』이라는 절도배가 발호하여 상당한 수량의 물자가 분실되었던 것으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9 경향신문 10월 11일 2면

용례 02

문헌 용례

당시 사회 질서의 혼란을 틈타 소위「얌생이」도배들이 조량하여 엄중한 경계망을 뚫고 원조 물자를 절취하여.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3 동아일보 8월 23일 2면

용례 03

문헌 용례

얌생이 버릇을 逐放하자.

현대어 풀이

얌생이 버릇을 몰아내자.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얌생이에 관한 주석

염소의 의미로 사용되던 '얌생이'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 내는 짓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52년 3월 5일 자 경향신문 2면 기사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이러한 얌생이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부산 등지에서 유행하던 얌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얌생이는 원래 '염소'를 뜻하는 부산 지역의 방언인데, 하루는 미군이 물자를 쌓아 놓은 철망 속에 염소가 들어가자, 주인이 파수꾼에게 양해를 구하고 염소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물건을 슬쩍 훔쳐 나오게 되었다. 이에 맛을 들인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염소를 철장 속에 몰아넣듯이 하면서 자주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결국 발각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얌생이 몬다'라 하고, 도둑맞은 것을 '얌생이 당했다'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얌생이의 보충 설명

1936년 11월 12일 자 조선일보 조간 5면의 기사에서는 표준어를 소개하면서 '염소', '얌소', '염생이', '얌생이' 중 모음이 'ㅕ'인 '염소', '염생이'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얌생이'가 본래 염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얌생이 관련 낱말

염소

얌생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조항법 2022 《우리말 어원 사전-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얌생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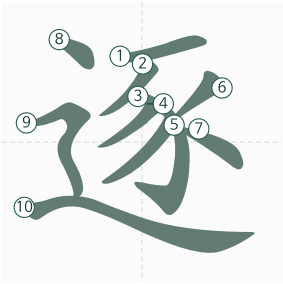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逐

뜻·음 쫓을 축

총 11획 · 부수 辶





사전 11획 · 획순 그림 10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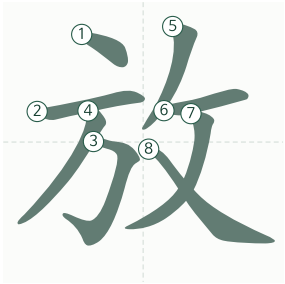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逐/

放

뜻·음 놓을 방

총 8획 · 부수 攴





hanja.wordrow.kr/한자/放/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